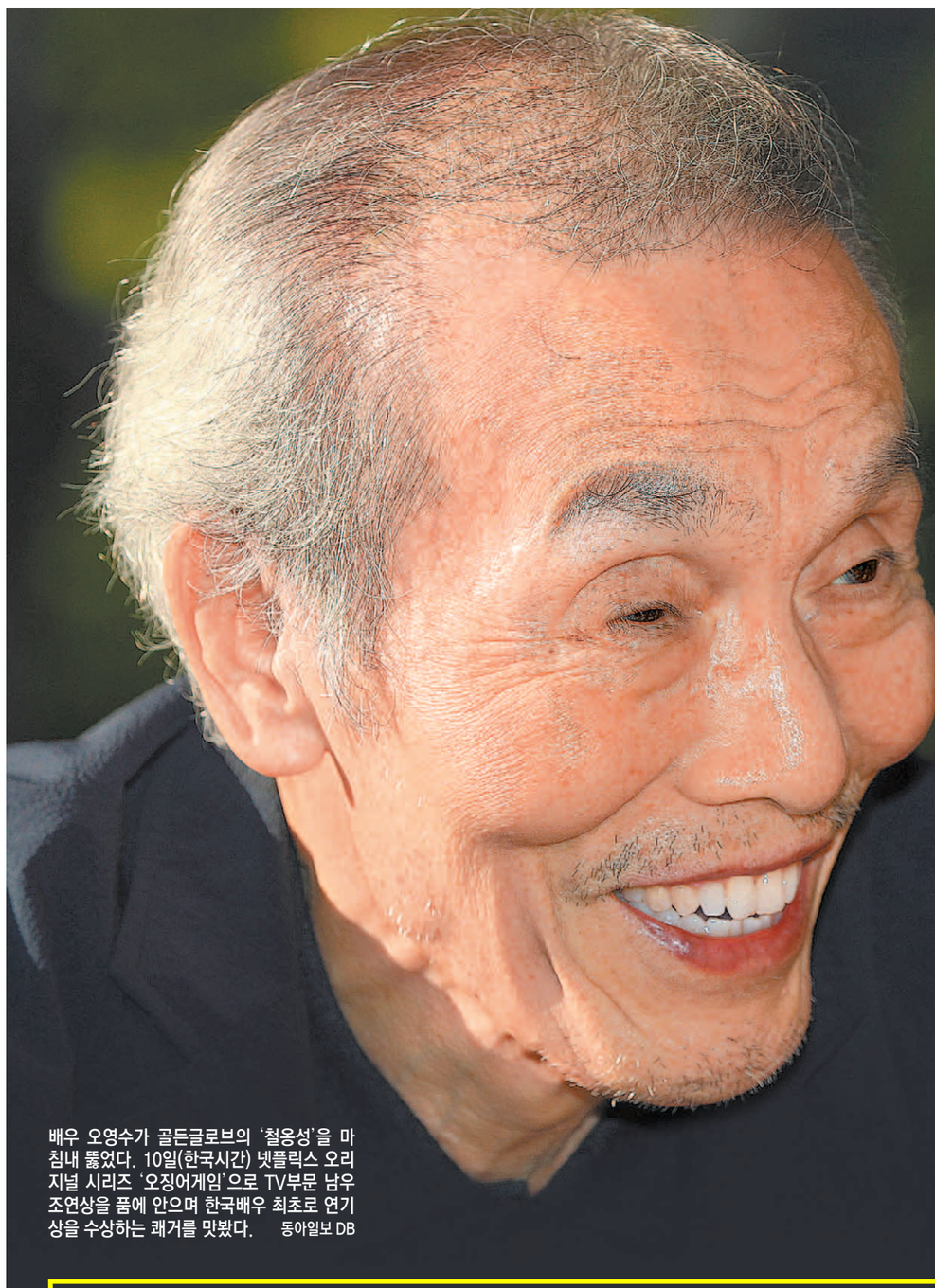
스포츠동아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www.sportsdonga.com



배우 오영수가 골든글로브의 '철옹성'을 마침내 뚫었다. 10일(한국시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으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품에 안으며 한국배우 최초로 연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맛봤다. 동아일보 DB

'오징어게임' 오영수, 한국배우 첫 美 골든글로브 TV 남우조연상 수상

78세 '깐부' 할아버지의 기적

1 컬킨·크루덥 등 쟁쟁한 스타들 제쳐
2 보수적인 美 골든글로브 장벽 허물어
3 '기생충''미나리'도 이루지 못한 성과
4 한국 배우들 주연상 도전 발판 마련

골든글로브 관련기사
▶ 2면

"이제는 '우리 속의 세계'입니다."

더 이상 '케이(K) 콘텐츠'가 넘어서지 못할 벽은 없다. 배우 오영수(오세강·78)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10일(한국시각) 열린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거머쥐었다. 한국 드라마에 출연한 한국 배우가 미국 최고의 영화·방송 시상식 중 하나인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는 앞서 세계무대의 중심을 향해 한 단계씩 올라온 한국 콘텐츠가 새 역사를 쓴 순간이기도 하다. 오영수는 2019년 칸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은 '기생충'과 영화 '미나리'로 지난해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75)도 끝내 넘지 못한 골든글로브의 문턱을 넘었다. '오징어게임'은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2개 부문 수상은 불발됐다.

● "철옹성 뚫은 '오징어게임'의 힘"

오영수는 이날 '석세션'의 키에라 컬킨, 또 '더 모닝쇼'의 빌리 크루덥, 마크 듀플라스, '테드 라소'의 브렛 골드스타인 등 할리우드의 쟁쟁한 배우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그는 456억원 상금을 따기 위해 목숨을 건 게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오징어게임'에서 1번 참가자 오일남 역을 맡았다. 주인공 이정재와 함께 '깐부'(친구)를 맺고, 삶의 지혜를 발휘해 생존해나가는 캐릭터로 주목 받았다.

역대 넷플릭스 시리즈 최고 흥행작으로 꼽힌 '오징어게임'의 영향력이 오영수의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또 "극히 보수적인 시상식"으로 통하는 골든글로브가 "아시아국가에 문호를 개방한 의미도 더했다"고 평가했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앞서 '기생충' '미나리' 등이 해외 시상식에서 굵직한 성과를 낸 흐름을 이어간 결과"라면서 "골든글로브의 철옹성도 깨지면서 다음 세대 배우들이 주연상 수상까지 노릴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고 진단했다. 김형석 영화평론가도 "윤여정에 이어 오영수까지 70대 배우들이 그간 수많은 시도와 노력을 축적해 이끌어낸 성과"라면서 "한국어 작품에 대한 세계의 장벽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정재도 "함께 해 영광"

축하 행렬이 이어졌다. '오징어게임'에서 오영수와 호흡을 맞춘 주인공 이정재는 이날 SNS에 "선생님과 함께 했던 장면들 모두가 영광이었습니다. '깐부'로부터"라는 글과 '오징어게임'을 촬영하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을 게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SNS를 통해 "반세기 넘는 연기 외길의 여정이 결국 나라와 문화를 뛰어넘어 세계무대에서 큰 감동과 여운을 만들어냈다"며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쉽게 수상이 불발되었지만, 우리의 자부심과 위상을 드높인 황동혁 감독을 비롯한 '오징어게임' 제작진과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이정재 배우께도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60년 가까이 연극무대 지켜…출연작만 200여편

○△□ 오영수는 누구?

한국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트로피를 거머쥔 오영수는 60년 가까이 무대를 지킨 대학로의 원로배우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미국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는 그를 두고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연극배우"라고 소개했다.

그는 1963년 극단 광장 단원으로 연극계에 입문해 '리처드 2세' '리어왕' '피고지고 피고지고' '템페스트' 등 200여 편이 넘게 출연했고, 1987년부터 2010년까지 국립극단 단원으로도 활동했다. 덕분에 동아연극상(1979), 백상예술대상(1994), 한국연극협회 연기상(2000) 등을 수상하며 남다른 입지를 구축했다.

대중에게는 '스님 전문 배우'로 통했다. 2003년 영화 '동승'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 연달아 스님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고, 이후 2009년 MBC '돌아온 일지매' '선덕여왕' 등 여러 편의 드라마에서도 스님 역할을 소화했다.

세상에 그의 이름 석 자를 알린 건 지난해 공개된 '오징어게임'이다. 극중 1번 참가자로 출연해 선보인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우리 깐부잖아" 등의 대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유행어 반열에 오를 만큼 인기를 끌었다.

오영수의 '내공'이 빛을 발할 무대를 제대로 만났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김형석 영화평론가는 "오영수가 뒤늦게 이름을 알린 것은 국내에서조차 평가 받을 기회를 제대로 맞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동료들이 각종 이유로 TV와 스크린으로 발을 옮길 때 오롯이 연극 무대를 지켜왔다"고 평가했다.

그간 선보인 뚝심 있는 행보를 앞으로도 이어간다. '오징어게임'으로 절정의 인기에 달한 순간에도 쏟아지는 광고, 프로그램 출연 요청을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다. 이후 연극 무대로 돌아왔다. 7일 막을 올린 연극 '라스트 세션'에서 프로이트 역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CJ CHEILJEDANG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